

군산 자립경제 확립 총력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선순환 일자리생태계 구축으로 민생경제 활력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경제혁신국은 28일 2021년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생력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됐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 신성장 동력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구현, 군산사랑상품권 5,000억원 발행 및 전역판매, 모바일 상품권과 연동된 선불형 체크카드 출

시로 편의성 확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2021년에는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을 이끌기 위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골목상권 기반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배달의 명수 확장 운영, 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 모토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마련을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전기차 연관산업을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민참여 발전 사업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군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과 함께 에너지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 다함께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항만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로 서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나아갈 계획이며,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설 명절 330억원 재정자금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금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 집행 재정자금은 330억원 규모다.

재정자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된다.

자금은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 100억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성비 80억원, 민간보조사업 지원금 50억원,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쌀 직불금 10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시는 이번 설 명절 자금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부서에 사법비 지출에 따른 사전절차를 마련

해 왔다.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금 예측은 물론 유휴 자금 예치시 만기일자 조정을 통해 명절 대금 집행을 준비해 왔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약 270억원의 복지급여 지급을 완료해 가계 안정에 대처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각종 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번 재정자금은 각종 공사·용역 관련 사업 집행에 집중해 경기 활성화를 물론 시민들이 보다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 물가안정대책 추진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AI), 한파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하며 물가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지도 한다.

특히, 설 명절 중점관리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집중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2030년까지 연안정비사업 추진

재해 대응능력 향상·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

군산시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지구를 시작으로 신시도, 무녀1구, 선유도 등 4개지역에 8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33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호안(550m)을 설치 보강해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접근성 및 이용성을 높이는 연안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차 계획에 따라 내홍동~경미동, 선유도, 비안도, 아미도, 경안동 등의 지역을 추진해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식이 지속·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대응력 강화, 연안의 이용 여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친수 공간 제공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사업 추진 방향에서 연안 지역 접근성·이용성을 높이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연안 안전을 보호, 지역은 발전하는 상생 효과도 도모하는 환경적·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안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디아미디어, ㈜디자인레벨, ㈜마부스, ㈜마인더스, ㈜조이그림, ㈜프리스트와 지역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박차

6개 기업과 투자 업무협약 체결... 50여개 신규일자리 창출 예정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의 전북 익산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디아미디어, ㈜디자인레벨, ㈜마부스, ㈜마인더스, ㈜조이그림, ㈜프리스트와 지역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홀로그램 콘텐츠, 그

래픽디자인 콘텐츠 제작업,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업, 브레인 피트니스, 애니메이션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지역에 연구소와 사무실 등을 신설하고 홀로그램 소프트웨어, 스마트미디어, 홀로그램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50여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홀로그램 산업의 선두에서 홀로그램 산업을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사업 통과 이후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유치, 국가공모과제 선정,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홀로그램의 중심도시가 될 익산에 동지를 틀 기업들이 익산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 추진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소를 방문해 일정금액을 카드·현금·군산사랑상품권 등으로 먼저 결제하고 업소에서 발행한 선결제 확인을 받아, 다시 상가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다.

이 캠페인은 군산시가 먼저 참여하고, 관내 주요기관, 단체, 기업체 등으로 점차 확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착한 마음이 선결제 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 게시,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중핵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벅장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착한 소비운동이 널리 전파되어 확산되어 시민들의 위치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